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50호【루게 제24463호】주제103(2014)년 2월 19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공 개 서 한 전 국 의 모 든 선 거 자 들 에 게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승리의 심심드높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과시하고 공화국정권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 전체 선거자들이 우리 당에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당의 평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결의와 의사를 담아 나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느끼었으며 커다란 고무를 받았습니다.

나는 전체 선거자들이 나에게 두터운 신임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충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대한 힘의 근본원천이며 공화국정권은 이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의 역사를 빛내어가고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 평도자와 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운 혈연의 정으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전체 선거자들의 높은 신임과 기대를 잊지 않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

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들이 세상만복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강성번영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에 따라 대의원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어있으므로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입니다. 우리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선거자들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진정한 인민의 대표들을 선거함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고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할것입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드높은 애국의 열정을 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보란듯이 일떠세우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정 은

주제 103(2014)년 2월 18일

사 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 건설위업은 오늘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밑에 승승장구하고있다. 선군조선의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수령의 혁명 사상, 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발전과 자랑 찬 승리로 수놓아지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선포, 이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있어 전진하게 되었고 당건설은 물론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사상 처음으로 당의 완성된 투쟁강령을 마땅히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혁명적진군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철석같은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평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즐기차게 투쟁하여온것처럼 앞으로도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나날은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눈부신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역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일성주의를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것은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일제기 농단산마루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한 력사의 맹세를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기 위하여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 불변 불류의 사상리론활동을 벌려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김일성주의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되고 새로운 원리와 내용들로 비상

히 발전풍부화되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 장군님처럼 수령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체계화하고 시대와 력사의 앞길을 밝히는 고귀한 사상리론적기치로 빛난 그런 위인은 없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이 실천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어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이 년대와 년대를 이어 힘있게 추진되었다. 김일성주의의 기치밑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파 건설의 모든 사업을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가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평도는 위대한 현실을 낳는다. 위대한 장군님의 평도밑에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속에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가 반석같이 다져지고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을 위하여 한복속바쳐 싸우는 주제형의 혁명파들의 대부대가 자라났으며 우리 조국땅우에는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불패의 일심단결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우리 인민이 누리는 높은 존엄과 자주적삶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력사적투쟁의 고귀한 전위들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어 김일성주의의 전일적 과 성취력을 비상히 높이신것은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곧 선군평도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언제나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오셨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권은 력사에 류례없는 반제대결전에서의 변전전승을 안아왔으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시대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에 의하여 선군사상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보편적의의를 가지는 21세기의 지도적지침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 조국은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날구쳐오르게 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솟아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류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사상리론적위업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비범한 예지와 정치적선전지명으로 우리 혁명파 자주위업의 견도를 내다보시며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는 력사적과제를 완전무결하게 해결하시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의기치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은 오늘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전환기에 들어섰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 계승이며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깊이 통찰하시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것은 거대한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제 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밑에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여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확고히 틀어쥐고 새로운 주제 100년대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영광의 세기로 빛내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위업실현의 만년초석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수심상상 혁명투쟁을 평도해오시면서 혁명파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빛나는 모범으로 보여주셨으므로 사상개조의 훌륭한 사상정신적제부를 마련하셨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는 온 사회의 사상적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더욱 귀중한 교과서이며 거울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주제사상, 선군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관철자가 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파적품도를 담은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일성동지의 참된 전사, 제자가 되면 그것이 곧 사상적일체화의 승리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국가활동의 유일무이한 지도적지침으로, 우리 일심단결의 억척분면의 초석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것이 전 인민적인 사상의지로 되고 대원수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심화되고 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격동적인 현실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당과 온 사회를 사상정신적결제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때 우리 혁명의 력사적위업, 사상적 일체화위업은 빛나게 실현되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혁명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있게 추동하는 전투적기치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창시와 심화발전과정은 곧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자기 운

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도,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한다는 총대철학도, 사회주의는 자기면 승리이고 버려던 죽을이라는 철리도 장구하고도 준엄한 혁명실천속에서 마련된것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사상은 우리 인민을 강한 자주정신의 체현자로 키우는 영양소이고 총대혁명승리의 역사를 즐기차게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활력소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불패의 뿌리로,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발하며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 영원한 존엄과 강대성, 통성번영의 역년기들이라는 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있다.

우리가 선택한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은 영원히 변할수 없는 백년대계의 전략이다. 우리는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하여도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동력이다.

지금 우리 당은 강성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확신있게 이끌어가고있다. 투쟁과업은 방대하며 우리가 가는 앞길에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힐수도 있다. 우리가 당의 평도 따라 온갖 시련을 맞받아싸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상과 포부를 지니고 어떻게 살며 투쟁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원칙과 요구,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있다. 인민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지니는 문제로 사체적관점을 견지할때 대한 문제로 주체사상을 확고히 앞세울때 대한 문제, 인민군대의 선구자적역할을 높이고 군민동등적관계를 강화할때 대한 문제, 일군들의 사업적품과 일본색을 끊임없이 개선할때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밝혀져있었듯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이 하루빨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여 이 땅우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전진하는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미래가 펼쳐져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평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

하고 세련된 평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희망찬 앞날을 확신하고있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 천체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평도예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새로운 주제 100년대가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승리하고 번영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년대로 빛날것이라는것이 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드림같은 신념이다.

백두의 행군길은 우리의 영원한 진군로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따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며 백두의 대업을 빛나게 이룩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평도를 혁명적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평도를 혁명파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실현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평도따라 주체혁명, 선군혁명, 한결같은 한결같은 걸어나갈 철석같은 결심을 지녀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적 평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정책이 제시되면 그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하는 혁명적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일심단결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위업실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혁명은 단결이고 단결은 승리이다. 일심 단결이 없으면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도 두려울것이 없고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관점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구호가 단결의 구호, 실천의 구호로 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견고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을 오늘의 총

진군길에서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해나가는데서 누구보다 앞장서 싸야 할 사람들이 우리 일군들이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많이 땀과 목숨을 흘려야 한다. 자기의 뼈를 짊어지라도 인민생활을 높이겠다는 비상한 각오,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완강한 투쟁정신, 끊임없이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적기풍, 이것이 오늘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이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의를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함으로써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선포하신 40돐이 되는 뜻있는 올해에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이 오늘의 총진군에서 선봉적,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생활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야 당안에 강철같은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고 당대회의 정치적사상적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에서 사상선, 선전선, 선전선들의 원바람을 일으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전당! 선전선, 선동원이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공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호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온 나라에 우리 당의 목소리가 함창게 울려 퍼지게 하고 모든 전투투쟁들이 일치하는 기상과 양양된 분위기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21세기를 대표하고 향도하는 영생불멸의 지도사상이다.

모든다 위대한 당의 평도따라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가자.

